



‘부처님의 산(경주 남산)’ 있는 그대로...

의 실상을 점점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 위덕대 박홍국 교수가 사진가 안장현 씨와 함께 발로 뛰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책 <신라의 마음 경주 남산>을 펴냈다.

사직을 바친 이후 조선 초기까지 법등을 이어온 절도 일부 있었으나, 전각은 사라지고 노천불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불상들은 세로 지은 보호각 안의 불상을 제외하면 모두 비바람 맞으며, 자연광으로 형상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절터 석등 석탑 등 수많은 문화유적 소개

촬영시간 표기...보기 좋은 시점 알려줘

경주에서 태어나 남산 자락에 살고 있는 박 교수는 불상을 마주하고, 무너진 석탑 주위를 맴돌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종합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누가 보아도 끝마무리가 미흡한 마애불상을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보여주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우리 조상과 현재의 우리를 다 같이 기만하는 일”이라며 날카롭게 지적하는 박씨는 “남산 유적의 위대함은 한두 곳의 절터나 불상에 있지 않고, 수많은 사원 건물과 불상·탑·석등이 바위산과 어울려 빛어내는 거대한 아름다움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 유적을 답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과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주 남산의 불교조각들은 원래 대부분 전각 안에 모셔져 있었다. 신라의 국운이 기울고 고려에

그래서 절기에 따라, 시각에 따라 시시때때로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사진가 안 씨는 이러한 경주 남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느 관련서와 달리 사진 하나하나마다 사진가로의 안목에서 사진 설명을 붙이고, 사진 촬영시간까지 꼼꼼히 챙겨 놓아 석불마다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안 씨는 후기에서 신선암 마애보살상과 조광(4월이나 10월의 오전8시경)·상선암 마애대불상과 황금들녘(9월 하순에서 10월 초 오후 2시 30분)·용장곡 삼층석탑과 아침안개, 석양안개 낀 오전 8시 또는 일몰시간·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의 미소(5월 또는 9월의 오전 9시 15분) 등 자신의 마음을 끄는 남산 심경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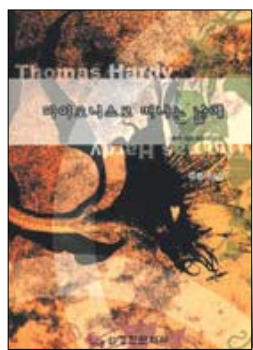
맨 뒷부분에 책에서 다른 유적의 분포 상태를 간략하게 표기한 남산 유적 약도도 실었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이 책은 경주 남산을 보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신라의 마음 경주 남산’

박홍국 글 / 안장현 사진
한길아트 / 2만원

경주 남산은 ‘부처님의 산’으로 불린다. 신라 사람들은 불교가 전래된 후에 이 산을 부처님께 바쳐 불국정토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높이 468미터에 불과한 바위산인 이곳에 우리나라의 그 어느 산보다 많은 문화유산과 수많은 절터와 석불·석탑이 있다. 사실 경주 남산은 신라가 망하고 난 뒤 거의 잊혀졌었다. 석불과 석탑은 훼손되었고, 찾는 이도 별로 없었다. 이런 경주 남산이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이 경주 남산



토마스 하디 시의 이해·감상

‘라이오니스로 떠나는 날에’

백원기 편역
경진문화사 / 1만 5천원

소설 <테스>의 작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하디(1840~1928)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영국 서정시의 전통을 이어, 영국 현대시의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었다.

<라이오니스로 떠나는 날에>는 하디의 시를 번역하고, 해설까지 덧붙여 그의 삶과 시 세계를 고찰한 흔하지 않은 시 해설집이다.

영국 토마스 하디학회 회원이자, 동서비교문학회 이사이며, 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동국대 전자계산원 백원기 교수가 펴냈다. 백 교수는 하디 시 가운데 자연과 인간, 사랑, 죽음, 신앙,

향수, 고별, 전쟁 이야기 등을 중심 주제로 100여 편을 골라 우리말로 옮기고 간단한 해설과 감상을 곁들였다. 10여 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시들

소 그와 같은 것을 눈여겨보던 사람이려오.”

하디가 77세 때인 1917년 발표한 시 ‘훗날’의 처음 부분이다. 이 시에서 하디는 생명의 나약함과 무력함, 생명체에 대한 동경, 자연 그 자체의 신비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디는 죽음이라는 매개를 통해 생물학적 존재에서 우주적 삶의 존재로 전이를 지속해 펼쳐낸다. 시 속에서 죽은 자들은 기억, 추억,

100여편 골라 번역·해설 덧붙여

이다. “현재가 뒷문의 빛장을 내리고 불안한 나를 현세로부터 내쫓고 /오월의 양기가 싱싱한 푸르른 잎을 갖 짝 얇은 명주같이 /펼쳐지려 할 때, 이 웃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그는 평

희상 등을 삶의 한 의미로 포섭하는 시인의 따뜻한 눈길에 이끌려 현실화된 영원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

책 첫머리의 ‘생가’는 그의 나이 17세에 쓴 것이며, 날짜가 표시된 40여 편의 시들은 그가 런던에서 건

축기사로 일하던 20대에 창작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시들을 통해 하디 시의 특징과 그의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까지 엿볼 수 있다.

“지상에 평화를!” 하고 외쳤다.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가져오게 할 백만의 사제들에게 돈을 준다. /2천년동안 미사를 올린 후에 /우리는 독가스까지 얻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보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하디가 쓴 시 ‘1924년 성탄절’이다. 역사의 흐름과 그 속에 내재된 아이러니에 대한 통찰이 이 4행 시의 역설 속에 응축되어 있다. 하디는 그의 문학에 공감했던 플로렌스 헤니커 여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명세계에 사는 우리는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정당하게 시험해 왔으나 그것은 아직 여러 나라에게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덕목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그러니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를 택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할 정도로 불교 사상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이은자 기자

생명·인체의 경이로움 밝혀



역사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조망하여, 현재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학이나 인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원 널랜드는 가설과 실험을 통한 검증에 익숙한 과학자이면서, 유명한 과학저술가이다. 그가 지구와 결합된 인체(人體)를 과학적 조명을 통해 살피고 있다. 의학사(醫學史)를 꿰뚫은 저자가 책 제목으로 선택한 <몸의 지혜>라는 용어는, 1923년 스탈링(Ernest Starling)의 왕립의과대학 연설제목 ‘몸의 지혜’와 1937년 에든버러 대학교의 찰스 세링턴의 연설제목 ‘몸의 지혜’의 맥을 잇는 것으로, 저자는 책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탄탄한 역사의 흐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의 해박함은 생물의 분류에서 척추동물론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속에 속하는 인체에 대한 단순한 의학이나 과학지식을 넘어 지구과학과 인류학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지극히 과학적이면서 출발한 인체에 대한 경이로움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인류에 대한 통찰로 완성시키고 있다.

그의 생명의 기원과 생명 및 인체에 대한 이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5억년 전 탄생된 원시지구에 단순한 원자들인 탄소(C), 산소(O), 수소(H), 질소(N)와 황(S), 인(P) 그리고 마그네슘(Mg), 칼슘(Ca), 철(Fe) 등이 존재하

극적인 임상 사례...추리소설 방불케

었다. 이들 원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분자를 만들고, 유기물이 필연적으로 생성되어, 36억년 전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 생명체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해가고 척추동물 중에 유인원을 거쳐 현생인류가 탄생되었다. 이들 생명의 기본단위는 세포이다. 이 세포는 유전체를 지닌 핵, 세포와 외부와의 경계인 세포막, 세포막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물질 등과 세포내 소기관으로 구성된 세포질의 세 개의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의 기원은 세포로서 세포가 분열하여 세포가 생겨난다.

인체는 다세포 생물이다. 다세포생물에서 각각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는 조직, 기관, 기관계 등을 형성한다. 신체구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포 자체 내에 있는 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계속되는 메시지와 이를 조절하는 해결책 등을 통한 연결된 총체가 생명의 요점이며, 생명

란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항상성을 유지해간다.

저자는 여기에서 무생물과 생물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지구환경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은 필연임을 확신하고, 생명과 생명주위 환경이 불이일원(不二元)임을 암시한다. “독특한 인간 정신은 인체 유기체의 자신이다.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이중성이 없다. 두개는 하나다”라는 표현에서도 그의 일원적 입장을 알 수 있다.

모든 생물이 생존과 번식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연속성을 추구한다. 이는 변화하는 지속성이다. 이는 부처님께 서 말씀하신 제행무상(諸行無常)에 해당하는 통찰이다.

그는 곳곳에서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더 위대하다는 확신을 피력한다.

“모든 생물의 유일한 목적은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인류는 기본적인 자기 보호와 증식 욕구를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부여받은 경이로움과 불가사의로서 추상적 추리, 고도로 조직화된 문명의 수립과 유지를 위한 개인과 공동 사회의 수단, 이타적 수준의 행위, 미에 대한 감각과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류를

동물과 구분 짓는다. “신체의 모든 세포와 분자는 마음의 한 부분이며, 모든 기관은 마음에 공헌하고 있다. 살아 있는 신체와 마음은 하나이며, 마음은 신체의 한 속성이다. 마음은 몇 백 만년에 걸쳐 쌓여져 스스로 유기체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지배받으면서도 한편으로 그 자체의 인생을 사는 정신적 구조를 창조해 낸 영혼의 산물이다. 이것을 부분이 아닌 전체보다 더 큰 어떤 자질이라고 주장한다.”라는 표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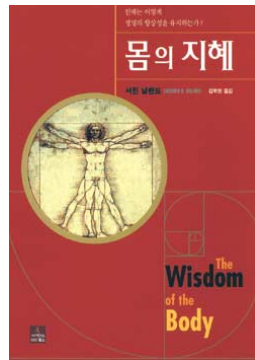
“인간정신은 우리가 인체구성으로부터 창출해 낸 그 무엇”이라는 생각에서 보듯이 생명체의 조화와 통일, 이타성(利他性)에 대한 통찰도 철학과 종교를 넘나드는 부분이다.

과학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되는 부분은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 안되든 현상을 직시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이 앞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것을 낙관하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는다.

유능한 임상외과의사이기도 한 저자는 역사 후기에서 밝힌대로 추리소설을 방불케 하는 극적인 임상증례의 제시로 독자를 흡인한 후, 정확한 인용과 도해를 통해 친절하게 독자를 의학지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배광식/서울대 치대 교수

<몸의 지혜>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과학저술가인 서원 널랜드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몸이 지닌 갖가지 경이로운 특성들을 감동적으로 소개한 수작이다. 각 정에서 살아 있기 위해 그리고 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몸의 극적인 과정들을 소개함으로써, 몸의 신비와 지체로움에 대한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몸의 지혜’

서원 널랜드 지음 / 김학현 옮김
사이언스북스 / 1만 8천원